

## 명제 태도의 퍼즐들: Zalta의 타협안

### Puzzles of Propositional Attitudes: Zalta's Eclectic Solution

박 우 석†

Woosuk Park

#### 요 약

뜻(Sense)과 지시체의 구별을 근간으로 하는 프레게류 의미론에 의하면, 같은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의 인지적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반면, 프레게의 뜻을 어떤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함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자라 보고 단호히 거부하는 소위 직접 지칭론자들은 문맥에 관계없이 같은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은 동일한 인지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뜻을 배척하고나면, 명제 태도 문맥에서 왜 같은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이 대치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명제 태도의 퍼즐들은 직접 지칭론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왔다. 최근 Zalta는 다소의 수정을 통해 프레게와 직접 지칭론자 양자의 중요한 통찰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양자의 관점을 종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자신의 해결책은 명제 태도의 퍼즐들을 훌륭하게 해결해 준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Zalta의 절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선결되어야 할 쟁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뜻, 명제 태도, 직접지칭, 인지적 의미, 압호화, 추상적 개체, 추상적 속성

#### ABSTRACT

According to the Fregean theory of meaning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sense and reference, the

---

† 한국과학기술원 교양과정부 부교수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AIST

373-1 Gusong dong, Yusong Gu, Taejon

305-701, Korea

Fax. 042-869-4610

cognitive significance of coreferential names may be distinct or The so-called direct reference theorists, however, claim that unambiguous, coreferential names, which have the same denotation from context to context, must have the same cognitive significance. Thereby, Fregean senses, counted as intermediate entities that determine the denotation of a term, are altogether rejected. Once Fregean senses are rejected, however, it is hard to explain why the substitutivity of coreferential names fails in the contexts of propositional attitudes. Thus, the puzzles of propositional attitudes have been the stumbling block for direct reference theorists. Recently, Zalta claimed that by small amendment it is possible to reconcile the conflicting views of Fregeans and the direct reference theorists without losing their important insights. Indeed, he claimed that his suggestion admirably solves the propositional puzzles. In this article, we shall critically examine his eclectic solution only to highlight some of the more basic issues.

**Keyword** sense, propositional attitude, direct reference, cognitive significance, encode, abstract individual, abstract property

S. Soames가 적절하게 표현했듯, 명제 태도 (propositional attitude)만 아니라면, 직접 지칭 (direct reference)은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역으로 직접 지칭만 아니라면 명제 태도는 훨씬 더 용이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1] 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을 놓고 뜻과 지시체의 구별을 근간으로 하는 프레게의 입장과 직접 지칭론자들의 주장 간에는 명백한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게에 따르면, 같은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의 인지적 의미 (cognitive significance)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참인 문장 "a = b"는 'a'와 'b'가 서로 다른 뜻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지닌다. 나아가서 그는 소위 명제 태도 문맥에서 이름들이 그것들의 뜻을 지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맥에서 왜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을 대치할 수 없는지를 알뜰하게 설명할 수 있다.[2] 그러나 크립키, 도넬란, 퍼트넘, 그리고 캐플란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론으로 대두한, 소위 직접 지칭론은 프레게의 뜻이 어떤 이름의 지시체를 결정함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자라 보고 단호히 거부하였다. 예컨대 캐플란에 따르면, 한 단어의 인지적 의미는 그것의 character, 즉 문맥으로부터 내용으로의 함수이고, 한 고유명의 내용은 그것의 지시체이므로, 문맥에 관계없이 같은 지시체를 갖는 애매하지 않은 이름들은 한결같은 character를, 즉 동일한 인지적 의미를 갖는다.[3] 그러나 일단 뜻을 배척하고 나게 되면, 명제 태도 문맥에서 왜 같은 지시체를 갖는 이름들이 대치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되고 만다. 따라서 명제 태도의 문제는 직접 지칭론의 아킬레스 건으로서 프레게류의 철학자들에게 좋은 공격 목표가 되어 왔다.[4]

최근 Zalta는 이러한 양 진영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흥미로운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같은 지시체를 갖는 애매하지 않은 이름들의 인지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프레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한편 그는 이름들은 직접 지칭적이고, 주어진 문맥 내에서의 단순 문장의 내용은 러셀류의 단칭 명제이며, 색인사의 Character와 내용의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캐플란을 추종한다. 그에 의하면, 다소간의 수정을 통해 프레게와 캐플란 양자의 중요한 통찰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양자의 관점을 종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자신의 해결책은 명제태도의 퍼즐들을 기왕의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게 해결해 준다고 주장한다.[5]

본 논문은 Zalta의 절충안이 과연 명제 태도와 관련된 퍼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는가, 그리고 애당초 그러한 타협책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는 가운데 보다 더 심원한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자연스레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필자의 논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1. 1.에서는 Zalta의 이론이 프레게의 퍼즐들과의 연관 속에서 요약되어 보고된다. 1. 2.에서는 프레게와 캐플란 양자의 기본적 통찰을 모두 보존한다는 Zalta의 주장과 그 근거가 보고된다. 1. 3.에서는 색인사들이 결부된 명제 태도의 퍼즐을 Zalta가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 본다. 그 다음 필자는 역순을 취해 우선 2.1에서 Zalta가 색인사가 결부된 명제 태도 퍼즐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논변한다. 2. 2.에서는 Zalta의 입장이 반-프레게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캐플란에게 충실한 것도 못된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

막으로 2.3.에서는 Zalta의 기본적 발상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 쟁점의 소재를 가늠해 본다.

## 1. 몇가지 퍼즐들과 Zalta의 해결책

1.1 Zalta는 자신의 마이농류 내포 논리학의 공리체계를 사용하여 명제 태도에 얽힌 퍼즐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 체계는 러셀류의 명제들에 토대를 두며, 그 명제들은 속성들과 관계들의 틈 안에 대상들을 끼워넣음(plugging)으로써 얻어지는 복합체들이다. 또 관계 내의 틈을 속박하는 양화에 대응하는 연산에 의해 양화 명제가 얻어진다. 물론 분자적 복합체와 양상적 복합체들도 있고, 지시된 명제에 그들의 지시체만을 제공하는 기술(description)들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체계가 프레게의 퍼즐이 생기는 전형적인 배경적 이론인 소위 '소박 정보 내용 이론 (naive theory of information content)'이라는 점이다.[6] Salmon에 의하면, 소박 이론은 (1) 한 단칭 명사의 정보값을 그것의 지시체와 동일시하고, (2) 한 문장의 정보값은 그것의 구성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두가지 아이디어에 근거해 있는데[7], Zalta의 체계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다.

왜 소위 소박 이론을 취하면 전형적인 프레게의 퍼즐들이 발생하는가? Salmon의 설명에 의하면, 소박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두가지 아이디어들이 정관 기술의 경우 상충되기 때문이

다.[8] Zalta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는 듯, 정관 기술을 포함한 예를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풀어 나간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롭다”와 “피네리트의 아들은 지혜롭다”라는 두 문장을 생각해 보자. Zalta의 체계에서 전자는 ‘ $W_s$ ’, 후자는 ‘ $W(i,x)Sxp$ ’로 표상된다. 이제 소박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첫째 아이디어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와 ‘피네리트의 아들’이 같은 개인을 지칭하는 한, 이 두 표상들이 똑 같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똑같은 단칭 명제를 지시한다는 귀결이 나온다. 또한 한 문장의 의미론적 정보가 그것이 지시하는 명제와 동일시된다면, 두 문장들은 똑같은 의미론적 정보를 구현한다. 그러나 어떻게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와 “K는 피네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는다” 간의 명백한 일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9] 다시 말해서, 둘째 아이디어에 의거할 때, 정관 기술도 문장과 마찬가지로 정보값을 갖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분들은 그 정관 기술을 포함하는 문장의 부분들로서 문장의 정보값에도 기여해야 하므로, 정관 기술의 정보값은 피네리트의 아들이라는 관계적 속성과 정관 기술 연산자 ‘ $G$ ’의 정보값 구현을 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존재자여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피네리트의 아들은 지혜롭다”는 문장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단칭 명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관 기술의 지시체와 정관 기술의 정보값을 별개로 다룬다는 점에서 소박 이론의 중대한 수정이 되게 된

다.[10]

Zalta는 그러나 Salmon 처럼 그러한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소박 이론을 유지하면서 정관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11] 또 실제로 그는 Salmon의 수정 방안을 연상시키는 전략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명제들의 진리치가 더 이상 기본적인지 않게 되므로 명제의 참됨에 관한 이해가 복잡해지며, 두 문장에 의해 지시되는 명제의 참됨이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Zalta는 “K는 마크 트웨인이 저자라고 믿는다”와 “K는 새뮤얼 클레멘스가 저자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오직 공지칭적(coreferential) 고유명의 등장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명제 태도 보고문들 간의 명백한 일관성을 수정된 소박 이론이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12]

이제 Zalta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명제 태도 문맥의 분석과 유관한 것은 포함된 문장의 의미론적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의 인지적(cognitive) 내용임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두 이름들의 인지적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의 인지적 내용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미론적 내용이 인지적 내용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명제 태도 보고문들의 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인지적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어떻게 의미론적 내용의 차이로 짜 맞춰 넣을 수 있느냐는데 있다.[13]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Zalta는 (1) 이름들과 기술들의 인지적 내용을 암호화(encode)하는 추상적 구성요소들을 갖는 러셀류의 단칭 명제들이 있고, (2) 그런 명제들은 명제 태도 문맥들 안에 포함된 문장들의 이차적 의미(secondary significance) 구실을 한다고 제안한다.[14]

첫째, Zalta의 마이농적 공리체계에서 추상적 개체(abstract individual)들은 일상적 개체들과 같은 논리적 유형에 속하고, 그것들의 특색은 그것들이 일상적 개체들이 예화(exemplify)하는 속성들을 암호화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 속성들(관계들)은 일상적 속성들(관계들)과 같은 논리적 유형에 속하고, 그것들을 구별짓는 특색은 그것들이 일상적 속성들(관계들)이 예화하는 속성들을 암호화 한다는 것이다. 두 추상적 존재자들이 동일하면,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 그것들은 똑같은 속성들을 암호화한다. 추상적 개체들,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이 일상적 개체들,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의 속성들을 각각 암호화한다는 사실 덕에 전자는 후자를 표상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추상적 개체들,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이 일상적 개체들,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과 같은 논리적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 덕에 일상적 구성요소들을 추상적 구성요소들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단칭 명제들과 복합 명제들이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15]

둘째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Zalta가 명제 태도 보고문들이 애매하며 거기에 포함된 문장

들이 일상적으로 지시하는 바를 의미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de re 독법과 de dicto 독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 거론되어야 한다. de re 독법을 취하면, 포함된 문장 내의 공지시적 명사들을 상호 대치함에 따라 보고문의 진리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de dicto 독법에 있어서는 포함된 문장들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고, 보고문의 진리치는 공지시어들의 대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Zalta의 제안은 de dicto 보고문들 내에 포함된 문장들은 추상적 구성요소들을 갖는 단칭 명제들을 의미하고, 포함된 문장들 내의 단어들은 이 단칭 명제들의 구성요소들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 문장의 인지적 내용은 de dicto 보고문 내에서의 그것의 의미론적 의미와 동일시된다.

이제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보고문의 de re 독법은  $B(k, Ws)$ 로 표상된다. 여기서 'B'는 이항 관계, 'k'는 사람 K, 그리고 'Ws'는  $PLUG_1(\text{being wise, Socrates})$ 라는 명제를 지시한다. "K는 피넬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는다"의 de re 독법은  $B(k, W(\iota x)Sxp)$ 로 표상된다.[16]

명제 태도 보고문의 de dicto 독법도 의미되는 명제들이 일상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추상적 구성요소라는 점만 빼고는 사람들과 명제들 간의 동일한 이항 관계를 포함한다. 이 명제들은 매개적인 믿음의 대상들이고, 파악될 수 있는 존재자들이며, 일상적 구성요소들을 갖는 명제

들을 표상한다. 그것들은 개별적 제시 양태를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명제적 제시 양태들이다. 이제 's<sub>k</sub>'를 K와 '소크라테스'를 연결짓는 추상적 개체를 지시하게 하면,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B(k, Ws_k)$ 로 표상된다. K가 관계를 맺는 명제의 의미론적 기술은 PLUG<sub>1</sub>(being wise, Socrates<sub>k</sub>)가 된다.[17]

"K는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는다"의 de dicto 독법은  $B(k, W(\iota x)Sxp)$ 로 표상된다. 여기서 Zalta가 자부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추상적 대상이 중간적 명제의 구성 요소이냐에 관해 더 많이 알게 — 즉 그것이 피내리트의 특정의 아들이라는 속성을 암호화하는 것임을 알게 —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는 중간적 명제의 구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정관 기술에 구현되어 있는 의미론적 정보를 암호화하며, 이것이 바로 Salmon을 좇아 소박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라 설명한다.[18]

Zalta는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그저 피내리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을 수 있는지를 간단히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e dicto 독법을 취할 때,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와 "K는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는다"가 일관된다는 것이다. de dicto 독법 하에서는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지혜롭다는 속성과 연결된, K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인지적 의미를 갖는 명제에 대

해 K가 특정의 관계를 지닐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일 것이다. 그 반면, "K는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는다"는 지혜롭다는 속성과 연결된 (K에 대해) '피내리트의 아들'이란 인지적 의미를 갖는 전혀 다른 명제에 대해 K가 이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K가 진실로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면, K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인지적 의미는 K에 대한 '피내리트의 아들'의 인지적 의미와 구별되는 대상일 것이다. 기호화해보면,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K는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믿는다.

- a)  $B(k, Ws)$  (re)
- b)  $B(k, Ws_k)$  (dicto)

(2) K는 피내리트의 아들이 지혜롭다고 믿지 않는다.

- a)  $\sim B(k, W(\iota x)Sxp)$  (re)
- b)  $\sim B(k, W(\iota x)Sxp)$  (dicto)

(3) 소크라테스는 피내리트의 아들이다.

- a)  $s = (\iota x)Sxp$

(3a)가 주어지면, 동일자대치율(substitu-

tivity of identicals)의 단순한 적용에 의해 (1a)와 (2a)는 모순이다. 그러나 (3a)를 사용해서 (1b)와 (2b)로부터 모순을 끌어낼 수는 없다.[19]

1.2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설명을 놓고 Zalta는 자신의 체계가 कै플란의 중심 테제인 직접지칭론을 보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떠한 매개적인 뜻들도 이름들의 지칭체를 확보하거나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름들은 애매하고, de dicto 문맥에서 이차적 의미를 갖지만, 그런 문맥들에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름의 지칭체를 확보하거나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체계 내의 추상적 존재자들이 용어들의 인지적 의미나 de dicto 문맥에서의 용어들의 의미론적 의미 따위의 프레게적 뜻들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할 지언정 결코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Zalta는 믿음 문맥의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간에 원자 문장들의 지시체는 कै플란의 주장대로 단칭 명제들이라 본다. 설사 어떤 de dicto 믿음 문맥 내의 한 원자 문장이 이차적 의미를 지닐지라도, 이 이차적 의미는 여전히 한 단칭 명제 내에서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Zalta는 용어의 뜻이 그것의 지시체를 결정한다는 것과 한 문장의 지시체가 진리치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कै플란의 입장과 양립불가능한 프레게의 두가지 원리들을 자신이 포기했음을 천명한다.[20]

한편 Zalta는 한가지 점에서 कै플란의 입장

으로부터 이탈한다. 그것은 그가 소위 인지적 character 함수라는 새로운 의미론적 함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형식 언어의 의미론에서 문맥들의 집합  $C$ 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에 의하면,

인지적 character 함수는 한 개체  $i$ 와 문맥  $c$ 에 대해 한 고유명을  $c$  내의  $i$ 의 이름의 인지적 의미 구실을 하는 추상적 개체로 투사한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i$ 와  $c$ 에 대해 속성 (관계)의 이름을  $c$ 내의  $i$ 의 이름의 인지적 의미 구실을 하는 추상적 속성 (추상적 관계)로 투사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i$ 와  $c$ 에 대해 ( $y$ ) 형식의 한 기술을 유일한  $r$ 는 속성을 암호화하는 추상적 존재자로 투사한다.[21]

캐플란의 'character' 함수는 각 문맥  $c$ 에서 각각의 이름을 그것의 내용 (또는 지시체)로 투사하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은 '마크 트웨인'과 '사무엘 클레멘스'와 같은 공지시적 이름들은 동일한 character를 갖는다. 그러나 Zalta의 체계에서는 이 두 이름들의 인지적 character가 다를 수 있다. 즉 한 용어의 인지적 의미가 그것의 character와 동일시되지 않고 그것의 인지적 character와 동일시된다는 것이 Zalta가 कै플란과 다른 점이다.[22]

1.3 이름들과 달리 색인사들은 항상적인 character를 갖지 않는다. 이제 Zalta는 색인

사들도 인지적 character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태도 보고문에서 한 고유명의 인지적 의미는 보고문의 주체와 그 이름 자체 간의 역사적 만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한 색인사의 인지적 character는 그런 만남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맥 *c*에 대해 보고문의 주체가 *c*에서 그 색인사에 의해 지칭되는 존재자를 어떤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반영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색인사는 그 보고문의 주체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관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Zalta는 이 이차적 의미가 동일자대치율이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들에 대한 설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23]

이 이차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Zalta는 인지적 character 함수를 확장한다.

한 개체와 한 문맥에 대해 주어진 한 색인사의 함수값은 그 개체가 그 문맥에서 그 색인사의 지시체를 인지하는 방식을 객관화하는 추상적 존재자이다.[24]

추상적 존재자들은 인지 내용에 포함된 속성들을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방식들을 객관화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통해 Zalta가 색인사가 결부된 명제 태도 보고문의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 보자. 어떤 해의 졸업생 앨범을 뒤적이던 K 교수가 한 학생의 사진을 가리키며 “나는 그가 학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운

동복을 입은 한 축구 선수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나는 그가 학자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몰랐을 뿐, 실제로 그는 알렉스 존스의 두 사진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럴 경우, K의 두 보고문은 다음과 같다:

(甲) 나는 그가 학자라고 믿는다.

(첫째 사진을 가리키며)

(乙) 나는 그가 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사진을 가리키며)

de re 독법에 따르면, 문제의 맥락에서 (甲)과 (乙)은 명백히 모순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호화에서 명백하다.

(甲a)  $\{B(I, S(\text{he}))\}_c$  (re)

(乙b)  $\{\sim B(I, S(\text{he}))\}_c$  (re)

여기서 각 식은 대괄호로 묶이면서 한 문맥에 대해 상대화되었다. (乙)을 발화할 때, 교수는 새로운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상황 *c'*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맥 *c*에서 *c'*로 이동함에 따라 지시체가 변경된 단어는 아무 것도 없다. 밀줄그어진 단어가 하나도 없으므로 우리는 문제의 문맥에서 각 단어의 지시체들만을 고려하여 이 표상을 의미론적으로 처리한다. 분명히 (甲)과 (乙)은 모순된다.

그러나 de dicto 독법에 따르면, (甲)과 (乙)은 일관된다. 이제 (甲)은 K와 ((甲)이 발화되는 맥락에 관하여) K가 알렉스를 인지하는 방

식을 객관화하는 추상적 대상을 학자라는 속성과 연결지음으로써 귀결되는 명제 간의 관계를 주장한다. 이것은

(甲b)  $[B(I, S(\underline{he}))]c$  (dicto)

로 표상되고, 여기서 'he'라는 식은 문맥 c에 관하여 첫째 사진을 볼 때 K 교수가 알렉스를 인지하는 방식을 객관화하는 추상적 개체를 지시한다.[25] 그 반면 (乙)은

(乙b)  $[\sim B(I, S(\underline{he}))]c'$  (dicto)

로 표상되고, 여기서 'he'는 (甲b)에서 지칭했던 바와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한다. 그것을 (乙)이 발화되었을 때의 문맥에서 K는 다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알렉스를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부터 Zalta는 다음과 같이 추리한다:

이 경우의 사실들이  $[he]c = [he]c'$ 를 가정하도록 허용할 따름이지  $[\underline{he}]c = [\underline{he}]c'$ 를 가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甲b)의 참됨이 (乙b)의 참됨과 모순된다는 것을 연역할 수 없다.[26]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곧 Zalta의 추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된다.

## 2. Zalta의 타협안 비판

### 2.1 Zalta의 색인사 분석 비판

2.1.1. Zalta가 색인사적 믿음과 관련하여 분석한 퍼즐은 Soames에게서 채택한 것으로 Richard의 퍼즐과 아울러 Richard-Soames 문제라고 불리우는 명제 태도 퍼즐 가운데서 결정판이라 할 만한 것이다.[27] 필자는 우선 Zalta의 해결이 모순을 내포함을 논변하고자 한다.

" $[\underline{he}]c = [\underline{he}]c'$ "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동일성 문장의 좌변과 우변에 의해 지시되는 추상적 존재자들은 동일한 속성들을 암호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에 의해  $[\underline{he}]c$ 는  $[he]c$ 가 예화하는 속성을 암호화하고,  $[\underline{he}]c'$ 는  $[he]c'$ 에 의해 예화되는 속성들을 암호화한다.  $[he]c = [he]c'$ 이므로 애초의 동일성 문장의 좌변과 우변에 의해 지시되는 추상적 존재자들은 동일한 속성들을 암호화한다. 모순 발생! 따라서 그것은 참이다. 이 추리는 임의의 색인사와 임의의 문맥에 대해, 그리고 임의의 가능세계에 대해 성립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일성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甲b)의 참됨이 (乙b)의 참됨과 모순이라는 결론을 연역해 낼 수 있다.

2.1.2. Zalta가 Soames의 퍼즐을 제시하는 방식에도 의문점이 있다. Soames의 원래 퍼즐에서는 졸업 앨범을 뒤적이던 교수가 "그는 (한 학생의 사진을 가리키며) 뛰어난 수학자이고,

그는 (한 축구 선수의 사진을 가리키며) 학교 최고의 운동 선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Zalta는 이 예를 채택하면서 "나는 그가 학자라고 믿는다 (첫번째 사진을 가리키며)"와 "나는 그가 학자라고 믿지 않는다 (둘째 사진을 가리키며)"로 변형시켰다. 문제는 Soames의 경우 이 예가 "다른 점에서는 합리적인 행위자에게 상충되는 진술들(또는 믿음들)을 귀속시키는 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었었는데(28), Zalta에 의해 채택된 정식화에서는 바로 이조건이 위반되고 있다. Zalta로서는 설사 상충되는 믿음을 귀속시키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해결책이 퍼즐을 다룰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사학적 배려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의 도입을 통해 Soames가 보고문들의 참됨을 보장하고자 했던 의도가 Zalta의 정식화를 통해 무산되고 있다. 교수의 발언 내용 자체에 '믿는다'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보고문들의 참됨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론을 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은 아마도 중대한 점에서 원래의 퍼즐을 변형시켰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격이 될 것이다.

2.1.3. Zalta의 해결책이 모순점을 포함하고 있고, 또 퍼즐을 정식화하는데 있어서조차 문제점이 있으므로 Zalta가 Soames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나아가서 Zalta의 해결 방안이 Salmon, Richard, Soames, Perry 등에 의해 각각 제시된 해결 방안들보다 유망하다는 증거

도 찾기 어렵다.(29)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특징적인 절충적 태도로 인해 Zalta의 입장을 이들의 입장과 비교해 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믿음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 이항 관계냐 삼항 관계를 가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Salmon과 Zalta의 이동, 페리의 믿음 상태들과 믿음의 대상들의 구별과 Zalta의 추상적 구성 요소들을 지닌 단칭 명제들과의 연관성 등이 비교의 준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30) 명제 태도 퍼즐들의 문제의 원천이 Barwise와 Perry의 상황 의미론, 나아가서 가능세계 의미론을 포함한 상황 집합(set of circumstance) 이론 일반에 있다고 보는 Soames의 관점과 이 퍼즐들은 오직 직접 지칭론과 관계된 것이라 보는 Salmon의 관점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 방안의 구성 요소들 간의 표층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31)

## 2.2. Zalta와 프레게, 그리고 캐플란

2.2.1. Zalta는, 프레게의 몇가지 원리들을 포기하면서도, 애매하지 않은 공지시적 이름들의 인지적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는 프레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의 추상적 존재자들이 프레게의 뜻이 수행하던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입장이 프레게의 중요한 통찰들을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캐플란등의 직접 지칭론이 프레게의 이론과 상충되는 한, 그리고 Zalta가

직접 지칭론을 채택하는 한, 그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결코 프레게류라 할 수 없다.[32] 이 점은 Zalta가 포기한 프레게의 원리들이 어떤 프레게류 이론을 프레게류 이론이게끔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리들임을 상기함으로써도 자명해진다.

Zalta는 한 이름의 뜻이 그것의 지시체를 확보하거나 결정한다는 프레게의 원리를 포기하였다. 그는 Burge와 Salmon의 논의를 빌려 뜻의 여러 가지 의미를 구별하여 열거하고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추상적 존재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기능은 단지 뜻2와 뜻5 뿐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뜻2는 “어떤 표현과 연관되는 지시체 또는 외연을 결정하는 것”이고, 뜻5는 “그 것에 의해 용어의 지시체가 확보되고 의미론적으로 결정되는 장치”를 말한다.[33] 그러나, Salmon이 적절히 지적했듯,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동시에 그 표현의 의미론적으로 연관된 순수 개념적 “제시 양태”이자, 그 표현의 지시체를 확보하는 장치이자, 그 표현의 정보값(information value)이지 않은 한, 어떤 표현의 뜻으로 간주되지 않는다.[34]

따라서 Zalta의 입장은 결코 프레게의 통찰을 보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 문장의 지시체가 진리치라는 프레게의 주장을 포기한 것도 결코 사소한 수정이라 할 수 없다. Salmon이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 프레게는 단칭 명제를

동일성 문장의 인지적 정보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애써 거부했기 때문이다.[35]

2.2.2. 그렇다고 Zalta가 캐플란에게 충실한 것도 아니다. 그가 한사코 강조하듯 인지적 character만이 그가 캐플란의 체계에 덧붙이는 유일한 요소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그러한 변개가 캐플란의 입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생각컨대 인지적 character의 도입은 캐플란의 체계에 쉽게 융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선 Zalta가 캐플란의 character의 역할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시 인지적 character를 추가하는 것인지, character의 역할을 인지적 character로 하여금 대신 떠맡게 하는 것인지부터 분명치 않다. Zalta는 분명 “의미론적 장치에 한 가지 새로운 의미론적 함수, 즉 인지적 character 함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다.[36] 그렇다면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character도 존속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점은 Zalta가 character와 인지적 character를 구별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논하는 데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Zalta는 캐플란과 달리 한 용어의 인지적 의미는 그것의 character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말하며[37], 그것은 마치 character가 더 이상 character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용어의 인지적 의미의 구실을 하던 character가 인지적 character에게 그 역할을 인계하고 났을 때, 그

것의 존속과 보유는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캐플란은 색인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서 character를 변하는 문맥에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 표현의 character는 언어적 규약들에 의해 확립되고, 그것은 모든 문맥에서 그 표현의 내용을 결정한다. 그는 character를 가능한 문맥들로부터 내용들로의 함수로 표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다.[38] 그는 생각의 대상과 생각의 대상의 인지적 의미를 구별하고, 전자를 내용과, 후자를 내용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인 character와 동일시했었다.[39] 예를 들어 사전에서

나: 말을 하고 있거나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라고 하며 포착하고자 하는 것을 캐플란은 직접 지칭론 하에서

(D1) '나'는 그것의 상이한 발화가 상이한 내용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색인사이다

(D2) '나'는 그것의 각각의 발화에서 직접 지칭적이다

(D3) '그것의 각각의 발화들에서 나'는 그것을 발화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라고 함으로써 정확하고 더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캐플란은 직접 지칭적인 표현들에 있어서 그것들의 지시체가 그

것들의 의미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의 의미가 위의 세 규칙들에 의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 해서 그것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40]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캐플란이 character를 통해 인지적 값에 도달하려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지적 값의 관념을 포착하기 위해 엄격히 의미론적인 개념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 다른 character를 갖는 한 쌍의 용어들이 주어졌을 때 인지적 값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다.[41] 그 반면 Zalta의 인지적 character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도입된, 순수한 의미론적 개념이 아닌 어떤 것처럼 보인다.

캐플란과 Zalta 간의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예측하는 일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일은 캐플란이 그토록 자신있게 자부하는 그의 소위 직관적이고도 정확한 색인사 이론에 인지적 character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는 일은 직접 지칭론 자체에 대단한 수술을 요구하는 일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Zalta는 그러한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커녕 아직껏 그러한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논변하지도 못했다고 여겨진다.

### 2.3 Zalta의 기본 발상의 문제점들

우리는 위에서 소박 정보 내용 이론의 두가지 기본적 아이디어들이 정관 기술들의 경우 서로 상충되며 따라서 정관 기술의 지시체와 정보값

을 별개로 취급하는 수정 이론이 불가피해진다. Salmon의 주장을 살펴 보았었다. 우리는 또한 Zalta가 그러한 수정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주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Zalta의 해결 방안이 의견상으로만 원래 제시된 바의 소박 정보 이론을 유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또 다른 한 가지 수정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Zalta가 자신의 방안이 소박 정보 내용 이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는 근거는 아마도 정관 기술의 경우에도 그것의 지시체와 정보값을 별개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을 터이다. 그러나 실상 그는 이차적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으로 이원화된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지시체에 일차적 개체들과 추상적 개체들의 두 종류가 있는 바에야 지시체와 정보값이 별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점에 있어서의 소박정보 이론의 유지가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Zalta의 색인사적 믿음 분석에 대한 비판에서 이미 분명해졌듯이 결국 문제는 Zalta의 체계가 마이농류 추상적 존재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론을 채택한다는 사실로 귀착될 것이다. Zalta의 마이농류 추상적 존재자들의 일반 이론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현존하는 내포 논리학의 체계들 가운데서 가장 풍부하고도 유연성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훌륭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42] 그러나 추상적 존재자들을 프레계류의 의미와 연결지어 의미론 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Deutsch처럼 뭔가 오도되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

다.[43] 앞에서 필자가 Zalta의 색인사적 믿음 분석에 대해 제시한 비판은 암호화의 언어가 그의 인지적 character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모순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의문으로, 즉 Zalta의 존재론과 의미론의 부자연스러운 결합에 대한 불만의 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는 나아가서 Zalta 등에 의해 추구되는 마이농류 추상적 존재자들의 지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그것은 Zalta의 경우 암호화'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원초적 술어화의 형식으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잘 들어난다. 이런 연유에서 필자는 Cocchiarella 및 그의 제자 Landini에 의한 Parsons 및 그의 제자 Zalta에 대한 비판들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러셀류 또는 프레계류의 이차 내포 논리학의 체계들은 술어와 명사화된 술어들을 구별함으로써 도입되는 내포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44]

### 3. 맺는 말

위의 논의를 통해 자연스레 부각되는 것은 "정보"라는 개념과 "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판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각성이다. 전자에 관하여는 페리를 위시한 상황의 미론자들의 최근 연구가, 그리고 후자에 관하여는 Salmon의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 명제태도의 퍼즐들은 Zalta의 타협안에 의하여 해결되

지 않았다. 흔히들 이야기하듯 퍼즐은 퍼즐로 남아 있는 한에서만 퍼즐일 테이고, 명제태도의 퍼즐들이 여전히 퍼즐인 한 우리는 아직 정보와 내용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어도 무방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Soames, S., "Direct Reference and Propositional Attitudes", J. Almog et al. (eds), *Themes from Kaplan*, p.393,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nd Oxford, 1989.
- [2] Frege, G., "Thoughts",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MaGuinness, B. (ed.), P. Geach and R. H. Stoothoff (trans.), pp. 351-372, Basil Blackwell, Oxford, 1984; Frege, G., "On Sense and Reference", 같은 책, M. Black (trans.), pp.157-177.
- [3] Kaplan, D., "Demonstratives", J. Almog et al. (eds.), 앞의 책, pp.481-564.
- [4] Salmon, N. and Soammes, S.(eds.), *Propositional Attitud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 [5] Zalta, E. N., "Singular Propositions, Abstract Constituents, and Propositional Attitudes", J. Almog et al.(eds.), 앞의 책, pp.455-479; Zalta, E. N., *Intensional Logic and the Metaphysics of Intentionality*, MIT Press, Cambridge, Mass., 1988.
- [6] Zalta, 앞의 논문, p.457; Salmon, N., *Frege's Puzzle*, p.17, MIT Press, Cambridge, Mass. 1986.
- [7] Salmon, 앞의 책, p.20.
- [8] 같은 곳.
- [9] Zalta, 앞의 논문, pp.457-458.
- [10] Salmon, *Frege's Puzzle*, p.21.
- [11] Zalta, 앞의 논문, p.462.
- [12] 같은 논문, p.458.
- [13] 같은 논문, pp.458-459.
- [14] 같은 곳.
- [15] 같은 논문, p.459; Zalta, 앞의 책, pp.15-37.
- [16] Zalta, 앞의 논문, pp.460-461.
- [17] 같은 논문, p.461.
- [18] 같은 논문, p.462.
- [19] 같은 논문, pp.462-464.
- [20] 같은 논문, pp.464-466.
- [21] 같은 논문, p.468.
- [22] 같은 곳.
- [23] 같은 논문, pp.471-472.
- [24] 같은 논문, p.472.

- [25] 같은 논문, pp.472-474.
- [26] 같은 논문, p.474.
- [27] Soames, 앞의 논문, p. 403f.; M. Richard, "Direct Reference and Ascription of Belief", Salmon and Soames (eds.), 앞의 책, pp.197-239; Salmon, "Reflexivity", 같은 책, pp.240-274.
- [28] Soames, 앞의 책, p.403.
- [29] Salmon, Soames, Richard의 논문은 앞의 주들 참조; Perry, J. and Crimmins, M., "The Prince and the Phone Booth: Reporting Puzzling Beliefs", Perry, J., *The Problem of the Essential In-dexical and Other Essays*, pp.249-278,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 [30] Zalta, 앞의 논문, pp.466-468.
- [31] Soames, 앞의 논문, pp.399-406; Salmon, "Reflexivity", Salmon and Soames (eds.), 앞의 책, pp.242-245.
- [32] 이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점은 밀의 추종자임을 표방하는 Salmon이 Forbes 등의 신프레게주의자들로부터 그의 이론 역시 신프레게류라는 비판을 받고서 필자와 동일한 논점에서 자신의 이론과 프레게류 이론들의 차이를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여러가지 점에서 자신의 이론이 프레게에 맞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남아 있다: 한 단순 단칭 명사의 정보값은 그것의 지시체와 동일시된다. 이 주요 강령이 그 이론을 밀 주의적으로 (또는 "신-러셀류로"), 그리고 따라서 통렬하고도 심원하게 반-프레게적으로 만든다." Salmon, "A Million Heir Rejects the Wages of Sinn", Anderson, C. A. and Owens, J. (eds.), *Propositional Attitudes*, p.235, CSLI, Stanford, 1990.
- [33] Zalta, 앞의 책, pp.154-168: 여기서 뜻1은 한 표현과 연관되어지는 표상의 양태를 말하고 그것은 정보값을 설명해준다: 뜻3은 불투명 문맥에서 그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존재자이다: 뜻4는 화자가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어법과 연관짓는 한 대상의 순수 개념의 표상이다: 뜻6은 그 용어의 정보값이다.
- [34] Salmon, N., *Frege's Puzzle*, p.47, MIT Press, Cambridge, Mass., 1986: "Tense and Singular Propositions", Almog et al.(eds.), 앞의 책, pp.331-392; "On Content", *Mind*, Vol.101, pp.733-751, 1992.
- [35] Salmon, 앞의 책, p.49.
- [36] Zalta, 앞의 논문, p.468.
- [37] 같은 곳.
- [38] Kaplan, 앞의 논문, pp.505-507.
- [39] Kaplan, 같은 논문, pp.530-531.
- [40] Kaplan, 같은 논문, pp.520-521.
- [41] Kaplan, "Afterthoughts", Almog et al.(eds.), 앞의 책, pp.597-598.

- [42] Anderson, C. A., "Zalta's Intensional Logic", *Philosophical Studies*, Vol. 69, pp.221-229, 1993;  
Cocchiarella, N. B. "Review of Zalta, *Intensional Logic and the Metaphysics of Intentionality*", *Mathematical Reviews*, 90f: 03057.
- [43] Deutsch, H., "Zalta on Sense and Substitutivity", *Philosophical Studies*, Vol. 69, p.214, 1993.
- [44] Cocchiarella, N. B., "Meinong Reconstructed Versus Early Russell Reconstructed",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Vol. 11, pp.183-214, 1982;  
Cocchiarella, N. B., "Frege, Russell, and Logician: A Logical Reconstruction", *Frege Synthesized*, Haaparanta, L. and Hintikka, J. (eds.), Reidel, Dordrecht, 1986;  
Landini, G., "How to Russell Another Meinongian",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Vol. 37, pp.93-122, 1990.